

셋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15절).

오늘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보호처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해가 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 번성하고 성장하며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최초 세계여행가 김찬삼씨는 “어떤 곳에 도착하여 보니 첫날에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다 달랐다. 그러나 3일 함께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것은 다 같았다”라고 술회했습니다. 거창하고 남다른 인생도 결국 죽음 앞에 초라한 운명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그 마지막에 증명할 것입니다.

찬 송 559장 다 갈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주은혜교회 설명절 예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6:24-25)



신앙고백 사 도 신 경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405장다 같 이

-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
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
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
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대표자기도 인 도 자

줄으신 하나님! 이 귀한 명절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친척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소식은 감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 가운데 온 가족이 건강하고 염려 없이 생활하게 하옵시며,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장성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은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 편 92편 12-15절 인 도 자

-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 이는 여호와와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잔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설 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인 도 자

사람은 흐르는 시간과 함께 계속 변화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투르니에는 인생의 변화가 사계절의 변화와 닮아 있고, 끊임 없는 성장과 변화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번성하며 성장합니다(12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인)은 언제나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푸르고, 겨울의 한기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길고 곧게 자라기로 유명한 품격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모습처럼 푸르고 생명이 길며 곧게 살게 될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인생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와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13절)”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노년에도 결실이 풍성합니다(14절).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결실하며 풍족하고 청청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잔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심지어 노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받아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젊음의 비밀입니다.